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더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초점)-6 월은 미국 경제의 코로나 탈출에 분수령
- ◇ (초점)-美 인플레 상승에 놀라지 않은 시장..힘 받는 연준의 전망
- ◇ (초점)-韓 백신접종 가속화, 외인 코스피 시각 변화 변수될까
- ◇ (칼럼)-사라진 금통위원 목소리, 잡음에 휘둘리는 시장
- ◇ (칼럼)-원화의 당면 과제와 API 도입의 연결고리..문제는 디테일

발행: 로이더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G7 정상회담 개최지 영국 콘월에 조 러시와 알렉스 렉키지 작가가 전자제품 폐기물로 만든 G7 회원국 정상들 조각상 모습. (로이더/툼 니콜슨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6월11일 종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1,110.8	0.5%	-2.2%	+6.5%	유로	1.2106	-0.5%	-0.9%	+8.9%
100엔 대비	1,017.9	-0.4%	3.3%	+1.1%	엔	109.65	-0.1%	-5.8%	+5.2%
유로 대비	1,351.5	0.0%	-1.9%	-2.3%	위안	6.3928	0.2%	2.1%	+6.7%
위안 대비	174.42	-0.5%	-4.6%	-0.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다우존스	34,479.60	-0.8%	12.7%	+7.2%
코스피	3,249.32	0.3%	13.1%	+30.8%	나스닥	14,069.42	1.8%	9.2%	+43.6%
코스닥	991.13	0.4%	2.3%	+44.6%	S&P500	4,247.44	0.4%	13.1%	+16.3%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MSCI APxJP	705.16	0.0%	6.5%	+19.8%
국고채 3Y	1.276%	5.6bp	30.0bp	-38.4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국고채 5Y	1.658%	-6.6bp	32.3bp	-14.5bp	미국채 2Y	0.149%	0.0bp	2.8bp	-144.0bp
국고채 10Y	2.101%	-7.2bp	38.8bp	+3.0bp	미국채 10Y	1.454%	-10.3bp	54.2bp	-99.8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0(%)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0(bp)
유가(WTI)	70.91	1.9%	46.1%	-20.5%	한국 5Y	18.2bp	0.1bp	-3.8bp	+0.1bp
금(현물)	1,876.64	-0.7%	-1.1%	+25.0%	일본 5Y	16.8bp	-0.1bp	1.8bp	-4.5bp
TR상품지수	2,935.40	1.1%	9.5%	+7.8%	중국 5Y	35.6bp	-1.2bp	7.6bp	-3.6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더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6월 14일(월)>

- 기재부, 확대 간부회의(15:00)
- 금감원, 3월말 기준 보험회사 RBC 비율 현황 (12:00)

<15일(화)>

- 한은, 4월중 통화 및 유동성(12:00)
- 한은, 5.27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16:00)

<16일(수)>

- 금감원, 4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12:00)
- 한은, 5월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12:00)
- 한은, '최근 우리 수출의 회복 요인 평가 및 향후 전망'(BOK 이슈노트 2021-14)(12:00)
- 기재부, 부총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쟁점 조정회의(15:00)

<17일(목)>

- 기재부, 1차관 거시경제금융회의(08:00), 국정 현안점검조정회의(13:30)
- 한은, 1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12:00)

<18일(금)>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10:00), 1차관 정례브리핑(13:3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6월 14일(월)>

- 일본 4월 산업생산 수정치 (13:30)
- 유로존 4월 산업생산 (18:00)
- 중국, 호주, 홍콩, 대만 휴장

<15일(화)>

- RBA, 6월 통화정책 회의록 공개 (10:30)
- 미국 6월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 (21:30)
- 미국 5월 PPI 최종수요 · 소매판매 (21:30)
- 미국 5월 산업생산 (22:15)
- 미국 4월 기업재고 · 소매재고 수정치 (23:00)
- 미국, 6월 NAHB 주택시장지수 (23:00)
- 미국 연방준비제도 FOMC 금리 회의(~16일)

<16일(수)>

- 일본 4월 기계류주문 (08:50)
- 일본 5월 수출입 (08:50)
- 중국 5월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 산업생산 · 소매판매 (11: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5월 건축허가 · 주택착공 · 수출입물가 (21:30)

<17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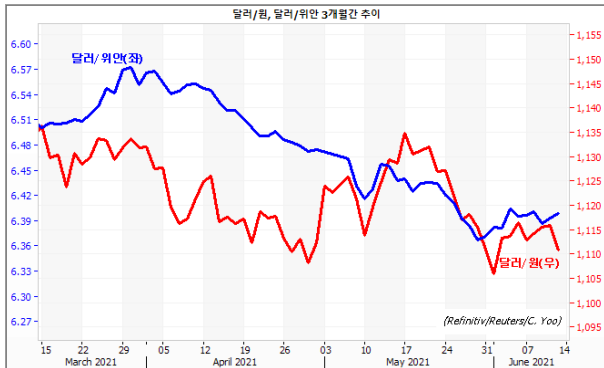
- 미국 연방준비제도 FOMC 금리 결정 발표 (03:00), 기자회견(03:30)
- 일본 6월 로이더단칸 제조업 · 서비스업 지수 (08:00)
- BOJ, 통화정책 회의 (~18일)
- 중국 5월 주택가격 (10: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미국 6월 필라델피아 연은 경기지수 (21:30)
-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18일(금)>

- 일본 5월 CPI (08:30)
- 유로존 4월 경상수지 (17:00)
- BOJ 금리발표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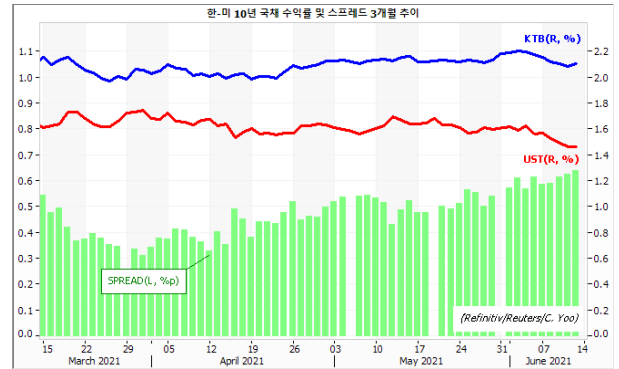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회의 결과에 따라 단기 방향성이 결정될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100-1125 원이다.
- 예상을 훨씬 웃돈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국내외 금융시장이 차분했던 이유로 6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이 판단을 유보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의 정책 기조 변화를 읽어 내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준의 테이퍼링 논의 시작 여부와 내년 점도표 상향 조정 여부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 지난번 연준 점도표에서는 전체 18명 연준 위원 중 4명이 내년 중 1회 이상 금리 인상을 전망했으며, 7명은 2023년, 나머지는 2024년 금리 인상을 전망한 바 있다.
- 이번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 높아지지만, 일각에서는 8월 잭슨홀 회의 때까지 연준의 정책 인내심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 그렇다면 달러 약세와 미국 채권금리 하향 안정화로 시장 내 위험자산과 통화의 단기 랠리가 전개될 수 있다.
- 이런 상황에서 초완화적인 연준 스탠스가 재확인될 경우 달러/원은 하락 압력이 확대되며 새로운 저점 찾기에 돌입할 전망이다. 물론 예상보다 회의 결과가 매파적이라면 환율은 단기 바닥을 다지며 반등 시도에 나서겠지만 말이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지난주 다시 한번 확인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의지, 주 중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등을 반영하며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 국내와 글로벌 시장, 단기물과 장기물 시장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며 움직이고 있어 대응이 쉽지 않은 장이다.
- 한은의 입장은 어느 때보다 분명해졌다. 지난 주말 이주열 한은 총재는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며 연내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분명히 했다.
- 미국 장기 국채금리 하락세가 지속된 것은 또 다른 변수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는데도 미국 국채금리 하락세는 멈추지 않았다.
-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다. 하지만 간단하게 볼 수도 있다. 시장 참가자들 그 누구도 향후 인플레이션 시대의 도래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연준에 맞서선 안 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이다.
-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깜짝쇼'를 벌일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낮다고 시장 참가자들이 보는 이유다. 물론 기준금리 인상 점도표가 2023년으로 조정되고, 기술적인 이유로 초과지급준비금리(IOER)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긴 하다.
- 하지만 테이퍼링 논의 개시를 공식적으로 언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현재 시장의 분석이다. 중요한 건 8월이든 9월이든 테이퍼링 논의가 시작된 후 시장 반응이 격해지면 연준이 언제든 되돌릴 것이라는 믿음이다.

(초점)-6 월은 미국 경제의 코로나 탈출에 분수령

워싱턴, 6월 08일 (로이터) -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언된 지 14개월이 흐른 이번 달 미국 주 가운데 절반에서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되고 가을에는 대학 등 학교 수업이 대면으로 전환되는 등 빠른 변화와 함께 미국 경제 회복세의 마지막 챕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경기장은 만원이 예상되며 캘리포니아가 오는 15일 코로나 19 관련 제한조치를 해제해 술집, 식당 등 사업체들의 경제 활동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워싱턴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는 팬데믹 대응을 위해 실시한 통화 완화 정책을 언제 어떻게 축소하고 장기 경기 확장세를 가능케 할 정책으로 전환할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자리로 돌아올지, 살아남거나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얼마나 될지, 팬데믹 지원책이 철회될 경우 경제가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 등 팬데믹 이후 경제 모습과 관련된 질문의 답은 곧 알 수 있을 것이다.

총 8000억달러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많은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왔고, 이같은 지원을 받은 한 양조업체는 현장 직원을 더 고용하고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근 4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작년 12월 코로나 19 백신이 출시된 이후 많은 경제지표 전망치는 기록적인 수준을 가리키고 있다.

12세 이상 인구의 60% 이상이 적어도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상태이며, 신규 확진 및 사망률은 크게 하락했고, 여행, 인적 교류 및 이와 관련된 업황은 꾸준히 회복세를 보였다.

Air travel picks up as infections drop

The onset of the pandemic in the spring of 2020 caused air travel to crater, and to remain down around 50% through the worst of the health crisis. As infections have eased, travelers have returned.



Source: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 맞춰진 것은 아니다.

지난 5월 일자리 수는 55만 9000개 늘어났지만, 일자리는 여전히 2020년 초에 비해 760만개 줄어든 상태다. 실업 상태인 사람들은 약 360만명 늘었고, 노동인구는 350만명 줄었다.

또 공급, 노동자, 원자재 부족으로 기업들이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고객을 돌려보내고, 주문을 늦추면서 경기 회복세가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은 이같은 부족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부양 지급금과 저금리로 인해 주택 판매가 크게 늘어 주택건설과 목재 가격도 상승했으나, 목재 등 일부 원자재 가격은 이미 반락하기 시작했다. 목재 선물은 고점 대비 24% 하락했고, 구리와 알루미늄 가격은 약 5% 떨어졌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가전제품 등 상품 소비 호황도 일시적인 것으로 확인될 듯하다. 수요가 강하더라도 공급이 따라잡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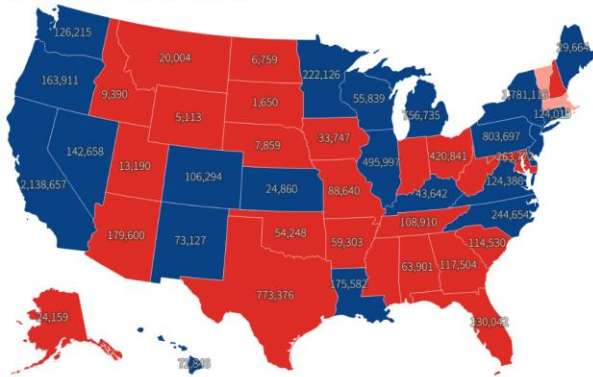
또 보건 우려, 보육 서비스 부족 등 다양한 사안에서 소외됐던 노동자들은 실업수당이 연장되면서 급하게 일자리를 찾을 필요가 없었지만, 오는 12월 4개 주에서부터 실업수당 프로그램 종료 시작된다.

A red state roll off

25 states with Republican governors will end the \$300 per week 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benefit between June 12 and July 13. Among GOP-led states only Mass. and Vermont plan to keep the benefit until it expires in September.

States ending federal unemployment benefits early

● NO - Dem Governor ● NO - GOP ● YES - GOP



Note: Numbers of pandemic UI recipients as of May 8. Pandemic data unavailable for Florida. Number reflects state continuing claims. Source: Department of Labor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총 5 조 2000 억달러가 일련의 부양 프로그램에 쓰 이면서 판데믹에 따른 경기침체 모습은 독특해졌 다. 작년 4 월 실업률은 14.8%를 기록했는데도 개인 소득은 증가했다.

이제 부양을 위한 자금이 대부분 소진되면서 관련 프로그램들은 하나씩 종료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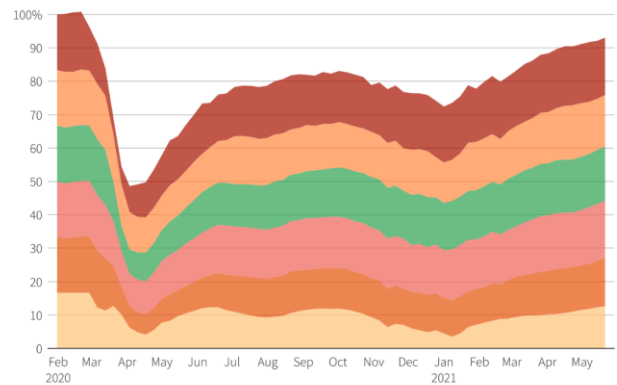
주 절반이 7 월 10 일까지 추가 실업수당 프로그램을 종료하며, 전국적으로는 9 월 4 일에 끝날 예정이 다.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한 급여보호프로그램 (PPP)은 지난달 31 일 종료됐다.

또 향후 몇 주 안에 물가, 임금 등에서 판데믹으로 인한 왜곡이 사라질 것이다.

Oxford Economics Recovery Index

The consulting firm's combined economic, financial and health index has been climbing this year towards pre-pandemic levels as vaccines take hold and reopening proceeds.

■ Health ■ Mobility ■ Demand ■ Employment ■ Production ■ Financial



Source: Oxford Economics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의 그레고리 다코 수석 미국 담 당 이코노미스트는 6 월을 시작으로 "수요가 견실하 고 노동 및 자본 측면에서 공급 문제가 해결되는 등 여름 호황기에 접어들 것"이라며 "공급 병목 현상이 서서히 완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노동시장에 서는 바이러스 우려 완화, 실업수당 등 지원 축소, 보육 개선 등으로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올 것이 다"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된 듯하다.

외출제한 조치가 실시된 지 1 년 만에 공원과 스포 츠 경기장에는 다시 사람들이 몰리고 식당 예약은 거의 다 찼다.

초기에 코로나 19 가 확산됐던 캘리포니아는 매우 엄격한 제한조치를 실시했고, 거의 마지막으로 관 련 조치를 해제하는 주가 될 예정이다.

미국 앨라미다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데미안 페이 건은 6 월 15 일 경제 활동 재개를 앞두고 직원을 6 명 더 고용했으며 몇 주 동안은 매우 바쁠 것으로 전 망했다.

그는 "이 파티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모르겠다"며 "흥분이 넘치는 기간은 결국 끝나고" 사업은 정상이 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점)-美 인플레이 상승에 놀라지 않은 시장..힘 받는 연준의 전망

시카고, 6월 11일 (로이터) - 지난 두 달간 미국의 인플레이션 급등에도 투자자들은 당황하지 않고, 연방준비제도가 경제 성장 반등에 노련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노동부가 10일(현지시간)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3년 만의 최고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뒤 월가는 며칠 간의 횡보세를 접고 사상 최고치로 상승했다.

미즈호의 콜린 애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시적이라는 메시지에 견인력을 얻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 패닉하려면 상품 가격에서 나타나는 매우 높은 전년비 상승률이 내년에도 재연될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이번 CPI는 고점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 관리들은 계속 2%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억누르는 한편 이를 제어할 수단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주 연준 회의 후 나올 성명과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들이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로알런던에셋매니지먼트의 피터 러터 주식 헤드는 "분명 채권시장은 일시적이라는 설을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는 그게 확실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일시적이 아니라고 판명될 경우에도 중앙은행들이 이에 대응할 것을 사람들은 확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S&P500 지수는 10일 사상 최고치로 상승했고, 10년물 수익률은 CPI 발표 직후 상승했지만 거래 후반 CPI 발표 전보다 3bp 이상 내린 1.464%까지 하락했다. 이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10년물 수익률이 1.75% 위로 상승하기 전인 3월 초 이후 최저 수준이다.

또 하나의 기대 인플레이션 척도인 물가연동국채 10년물의 브레이크이븐 레이트는 2.35%로, 전일 기록한 2개월래 최저치 2.326% 부근에 머물렀다.

이는 시장이 앞으로 10년간 인플레이션 평균이 연준의 2% 목표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5월 중순에는 브레이크이븐 레이트가 2.55%를 넘었었다.

◆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인플레이션

나티시스의 조셉 라보르냐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많은 투자자들이 성장이 어찌면 상당히 더딜 것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이 인플레이션 상승을 압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은 경제 가속화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세금과 규제, 정부 지출 관련 우려가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R.라일리파이낸셜의 마크 그랜트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2008-09년 금융위기에 앞서 크게 시장을 "움직이는 요인(mover)"이었던 인플레이션이 점차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influencer)"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수치는 예상보다 조금 더 상승했지만 레인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면서 "채권시장은 놀라지 않았고, 이것이 저금리를 유지한다는 연준의 시각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4월 0.8% 급등하며 2009년 6월 이후 최대폭 상승을 기록한 뒤 5월에는 0.6% 상승했다. 식품 물가는 0.4% 상승했지만 휘발유 수요는 2개월 연속 감소했다.

CPI는 전년동월비로는 5.0%가 급등하며 전월의 4.2%보다 가속화돼 2008년 8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로이터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5월 CPI가 전월비 0.4%, 전년비 4.7%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초점)-韓 백신접종 가속화, 외인 코스피 시각 변화 변수될까

서울, 6월 11일 (로이터) 이지훈 기자 - 국내 코로나 19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외인 투자 변화가 뒤따를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8.5조원어치 주식을 팔아치우며 14개월 만의 최대 순매도를 기록했던 외인들은 이달 들어 약 4천억원을 순매수했고,

11일 오후 현재에도 1천억원대 순매수를 기록 중이다.

최근 미국 국채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달러는 약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외인 투자에 있어 국내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은 한층 커지게 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 백신 접종 가속화에 대한 여파가 집중 조명받고 있다.

▲ 백신 접종률 급증

국내 코로나 19 백신 1차 접종자가 11일 0시 기준 1056만여명으로 집계돼 인구 대비 접종률이 20%를 넘어선 가운데 접종 가속화에 대한 기대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2월말 국내 코로나 19 백신 접종 시작 이후 3월말까지 총 87만여명에 그쳤던 1차 접종자 수는 4월과 5월 각각 244만여명, 246만여명 증가했고 6월에는 불과 열흘 만에 477만여명 급증했다.

6월 미국이 공여한 안센 백신 접종 시작과 함께 국내 접종자 수는 급증하기 시작했고, 3분기에는 화이자 및 모더나 등의 백신 도입도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접종자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영국 옥스포드대학교의 'Our World in Data' 프로젝트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은 4월 하순 아시아 접종률을 앞질렀고, 5월말 세계 접종률도 앞질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이달 말까지 애초 목표를 넘어서는 1400만명에 대한 코로나 19 백신 1차 접종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3분기에는 국민의 70%인 3600만명의 1차 접종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접종 속도별 통화 강세 차별화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도 한국 백신 접종 가속화가 성장을 상향 및 금리 인상 등 원화 강세 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연초 미국의 백신 접종 가속화가 달러 강세를 자극하고, 이후 유로존 접종 진전이 유로 강세로 이어지는 등 올해 주요국 통화는 접종속도에 따른 국가별 차별화가 진행 중이다.

아시아 지역 증권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5월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자금 순유출 규모는 총 120.5억달러로 작년 3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를 두고 더딘 백신 접종속도와 역대 코로나 19 확산 등이 배경으로 제기됐다.

ANZ는 최근 신흥시장 보고서에서 "투자자 관심이 백신 접종으로 옮겨지면서 아시아의 느린 진전 속도와 일부 국가의 재확산이 이전의 낙관적인 전망을 훼손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역내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 성장 전망 회복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 자금도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클레이즈는 "작년 코로나 19 대응 선두주자였던 한국의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빠른 백신 접종률은 수출과 투자에 기반한 긍정적인 성장 전망을 강화한다"고 평가했다.

▲ 수출 중심인 한국은 다르다

백신 접종 가속화가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더라도 수출 중심의 국내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외인 시각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백신 접종이 경제 정상화 기대를 키우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수출주가 시가총액 상위권을 형성하는 한국은 백신 접종과 기업실적 등 주가 펀더멘털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2015-2020년 평균 국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비중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각각 68.6%, 27.3%였던 반면, 실물경제의 산업별 GDP 비중은 각각 36.3%, 51.4%로 나타났다면 "국내 주식시장은 실물경제와 산업구조가 상이하고 수출·제조업을 주로 대표한다"고 분석했다.

이원 부국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경제활동 '락다운'과 생산활동 '셧다운' 중에 '셧다운' 영향이 중요한 국가"라면서 "코스피를 글로벌 첨단산업에 대한 지수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주로 수출과 같이 움직이고 국내 백신접종 현황에 민감하게 좌우되는 지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도 "한국은 미국과 유럽 같은 봉쇄조치가 없었으니 백신 접종이 큰 의미가 없다"면서 "미국과 유럽 등 백신 접종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과 확연한 수출 개선세가 국내 증시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외국인 주식자금 추이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칼럼)-사라진 금통위원 목소리, 잡음에 휘둘리는 시장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6월 7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고승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총대를 메고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내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간 이 루머는 5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두고 채권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

5월 금통위 회의 때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알려진 재료였다. 최근의 인플레이션과 자산 버블 논란까지 감안할 때 금통위가 경제 성장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과도한 유동성 공급 기대감을 제한하기 위한 의사소통에 집중하리라는 예상이 커지던 시점이었다.

이같은 시점에 구체적인 정황과 금통위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나온 금리 인상 소수의견 루머가 채권시장 참가자들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결국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 루머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27일 채권가격은 전날의 약세 폭을 되돌리는 데 성공한다.

▲시장과 금통위의 온도차..누구의 책임인가

지난달 금통위 회의 직전 증권사와 은행의 채권 애널리스트 및 이코노미스트를 상대로 로이터통신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참가자 26명 전원은 올해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내년 상반기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한 전문가는 10명에 그쳤고, 11명은 기준금리가 내년 하반기에야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5월 금통위 직후 시장의 컨센서스는 완전히 뒤집힌다. 주요 IB가 발 빠르게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내놓은 가운데 국내 리서치 하우스들도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실는 보고서를 내놓기 시작했다.

한은이 올해 4%, 내년 3%의 성장률을 예상한다고 발표하고 이주열 총재가 너무 늦지 않게, 실기하지 않는 통화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가 뒤집힌 것이다.

이쯤 해서 앞에 소개한 루머가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경로를 생각해 보자.

물론, 통화당국이 시장의 루머까지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다.

채권 분석가들의 통화정책 전망은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 성장률과 물가 추이를 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놓고 채권시장에선 펀더멘털보다 대통령 선거와 한은 총재의 임기 만료 시점과 연계된 정치 공학 논리가 횡행한 게 사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 참가자들에게 충분한 단서가 제시됐느냐다. 그동안 시장 참가자들에게 개별 위원들의 정책 성향을 파악할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그 공백을 루머가 파고든 것이다.

성장률과 물가 추이만 보면 당장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무방할 것 같은 미국의 경우 시장과 연준의 발걸음에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시장은 빠른 속도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고 연방준비제도는 '향후 몇 년간은 걱정말라'며 시장이 선볼리 움직일 때마다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한은의 소통 강화 원칙과 사라진 금통위원 기자간담회

국내 통화당국이 미국과 달리 신비주의를 고수해 왔던 것도 아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취임 일성으

로 시장과의 소통 강화를 내세웠고 실제로 다양한 조치를 통해 통화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2016년 한은이 도입한 조치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획기적인 변화로 손꼽힌다. 한은은 의사록을 통해 금통위원들 개개인의 발언과 결정 내용을 상세히 공개함과 동시에 소수의견이 나올 경우 회의 당일 위원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금통위원의 공개 강연과 기자간담회를 확대한 것도 큰 변화였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 금통위원 기자간담회가 사라진 것은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의 후퇴가 아닐 수 없다. 한은은 2017년부터 임명직 금통위원 5인이 개별 강연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시장에 공개해 왔는데 코로나 19 사태 이후로는 간담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 상황을 맞아 이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이 불가피했다는 점에서 금통위원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은 분위기가기도 했다.

대외 세미나 등에서의 연설을 통해 공개 발언에 나선 금통위원들의 목소리 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 세미나에서 고승범 위원은 "내년에도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지속되면서 국채 발행이 늘어날 텐데 한은의 입장은 국채시장, 채권시장 동향을 잘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같은 입장은 다른 의사록에서 대다수 위원이 공통적으로 밝혔던 부분이다.

금통위원들 입장에선 재정·통화정책의 공조를 통한 위기 극복이 강조되는 시점에 일부 위원의 특정 주제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달라진 환경에도 여전히 달린 기자간담회..속히 재개해야

하지만 올해 들어 빠른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자산 버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통위원들의 입장이 조금씩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지난 1월 두 명의 금통위원이 자산가격 상승 배후 중 하나로 통화정책에 대한 '과도하게 낙관적인 기대'를 언급했고, 또 다른 한 명의 위원도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기대'가 경제 주체들의 위험 추구 성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다들 코로나 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이 실물경제 회복에 초점을 두고 한동안 완화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금융 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같은 의사록 상의 변화가 최근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이 5월 금통위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반문도 가능할 것이다.

연세대 박기영 교수와 이영준 박사, 한은 경제연구원 김수현 부연구위원은 지난 2019년 1월 '텍스트 마이닝(textmining)을 활용한 금통위 의사록 분석' 보고서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금통위 의사록 내 주요 단어들의 사용 빈도와 의미를 분석하면 기준금리 방향을 상당 부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AI의 금리조정지수와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지적하고 있다. AI가 의사록 분석을 통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평가한 시점에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오히려 금리 인상 기대감을 높였다는 것이다.

시장 참가자들에게 의사록 상의 미묘한 변화를 적시에 파악해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적절한 기대 수준을 갖추라고 요구하는 것은 다소 과도해 보인다. 중앙은행의 가이드라인 없이 시장 참가자들이 과거의 데이터와 통화당국의 행태를 기반으로 도출한 전략에 기반해 기대 수준을 조정할 때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통화당국 입장에서도 미래 단기 금리의 경로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와 자신들의 시각 간에 긴밀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이고 통화정책의 영향력을 제고하는 데 더 유리할 것이다.

지난해 4월 조윤제, 주상영, 서영경 금통위원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도 전에 공식적인 외부 의사소통

채널이 대부분 차단되면서 시장의 단서 찾기는 더욱더 어려운 작업이 됐다.

금통위 의사록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성명서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투명하지 않으나는 반론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젠 금통위원들이 나설 때다. 금통위원들은 자발적 합의를 통해 2년째 기자간담회를 통한 소통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고 있다.

통화정책의 분기점 진입이 분명해지고 있는 현재까지도 소통의 문을 차단한다면 시장에서는 다른 쪽의 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새로 금통위에 합류한 위원들의 소통 능력 부족 문제다.

한시라도 빨리 금통위원 기자간담회 재개를 촉구한다.

(칼럼)-원화의 당면 과제와 API 도입의 연결고리.. 문제는 디테일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6월 8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경방)에서 달러/원 현물환 시장의 전자거래 인프라 마련 방안을 담으면서 외환시장의 중대 변화를 예고했다.

전 세계적인 전자거래 활성화에 발맞춰 원화의 역외 NDF 거래 규모가 급증하자 외환 당국은 원화의 전자거래 시스템 구축에 전향적인 태도를 취했고, 시장은 작년 하반기에 이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외환 당국은 시장 주도를 강조하지만, 올해 경방에 전자거래 인프라 개선이 포함됐고 실제 태스크포스 회의 일정이나 내용에서도 당국 입김이 작용하는 점을 볼 때 당국 의지도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NDF 거래 급증 함의와 당면한 과제

그도 그럴 것이 국제결제은행(BIS)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신흥국 통화의 NDF 거래 규모는 2016년의 2배 가까이 늘고, 거래 규모가 급증한 통화 중 하나로 원화가 꼽혔다.

또한 BIS 데이터에 따르면 하루 평균 달러/원 NDF 거래는 2016년 300.8억달러에서 2019년 601억달러로 급증했고, 비거주자 간 원화 관련 하루 평균 외환 거래도 2019년 840억달러로 3년 전보다 약 100% 늘었다.

이처럼 역외 거래가 비대칭적으로 급증하자 원화 가격 주도권 우려가 불거졌고, 이에 당국과 역내 은행들은 역외 유동성을 역내로 흡수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BIS는 신흥국 통화 거래량 급증을 신흥국 자산 투자 확대로도 설명했지만, 전자거래 활성화에 더욱 주목했다. 그렇다 보니 외환 당국은 원화의 전자거래 포문을 여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 도입을 고려하게 됐다.

어찌 보면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원화 국제화에도 맞아떨어진다.

API 방식의 전자거래 시스템 구축은 역내 외국환 은행이 은행 간 중개시스템과 대고객 거래시스템을 전용회선으로 연결해 호가 제공, 거래 체결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환 거래로의 확장 및 다양한 거래자의 참여를 의미한다.

전자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외환 거래 편리성과 가격 투명성 등을 높여 소비자 편의 차원에서 분명 설득력을 가진다.

하지만 역외 유동성을 역내로 흡수하는 관점에서는 챙겨봐야 할 리스크가 적지 않다.

▲ 역외 유동성 주체

BIS는 앞의 보고서에서는 신흥국 통화 거래 규모 증가는 재화나 용역의 무역보다 금융 측면과 더 강하게 연결돼 있다면서 이는 전자거래 활성화로 인한 비은행 금융기관 거래 확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다.

API를 통해 은행 간 거래 정보를 받은 비은행 기관들이 대고객 유동성 공급 역할이 가능해지면서 이들의 거래 비중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BIS는 유로머니 서베이를 인용하면서 2019년 기준 비은

행 외환 거래 기관들의 현물 거래 비중이 10%에서 32%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NDF 전자거래로 알고리즘 거래에 활발한 헤지펀드와 비은행 외환 거래 기관 거래의 증가 추세도 덧붙였다.

은행 위주의 폐쇄적인 유동성 공급 체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체로부터의 유동성 공급은 시장 외형 확대에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방향성 베팅과 차익 거래를 위해 액티브 전략을 고수하는 역외 기관들의 유동성을 끌어들이는 데 대한 대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 풀어야 할 숙제들

원화는 유동성과 변동성이라는 숙제를 한꺼번에 풀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은행의 프라임 브로커지리 서비스만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비은행 기관의 API 연결로 인해 유동성은 늘겠지만, 이와 함께 환율 변동성 확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간 변동성 관리에 주력한 외환 당국과 이에 익숙해진 시장 참가자들이 API 도입 이후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처할 준비는 됐는지, 역외 유동성을 흡수하기 앞서 역내 유동성을 제고하는 방안은 없는지, 원화 주도권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국내 은행들이 새로운 시장 환경에 대한 깊은 고찰과 함께 발 빠르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등 여러 질문이 한꺼번에 떠오른다.

글로벌 추세를 따르기 위한 큰 방향은 정해졌다. 이에 일부 국내 은행은 원화의 전자거래 구축을 위한 진지한 접근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그간 벌어진 격차를 감안하면 국내 은행들에게는 기회보다는 아직은 위기에 가까워 보인다.

냉혹한 자본시장 환경에서 원화 주도권이라는 거시적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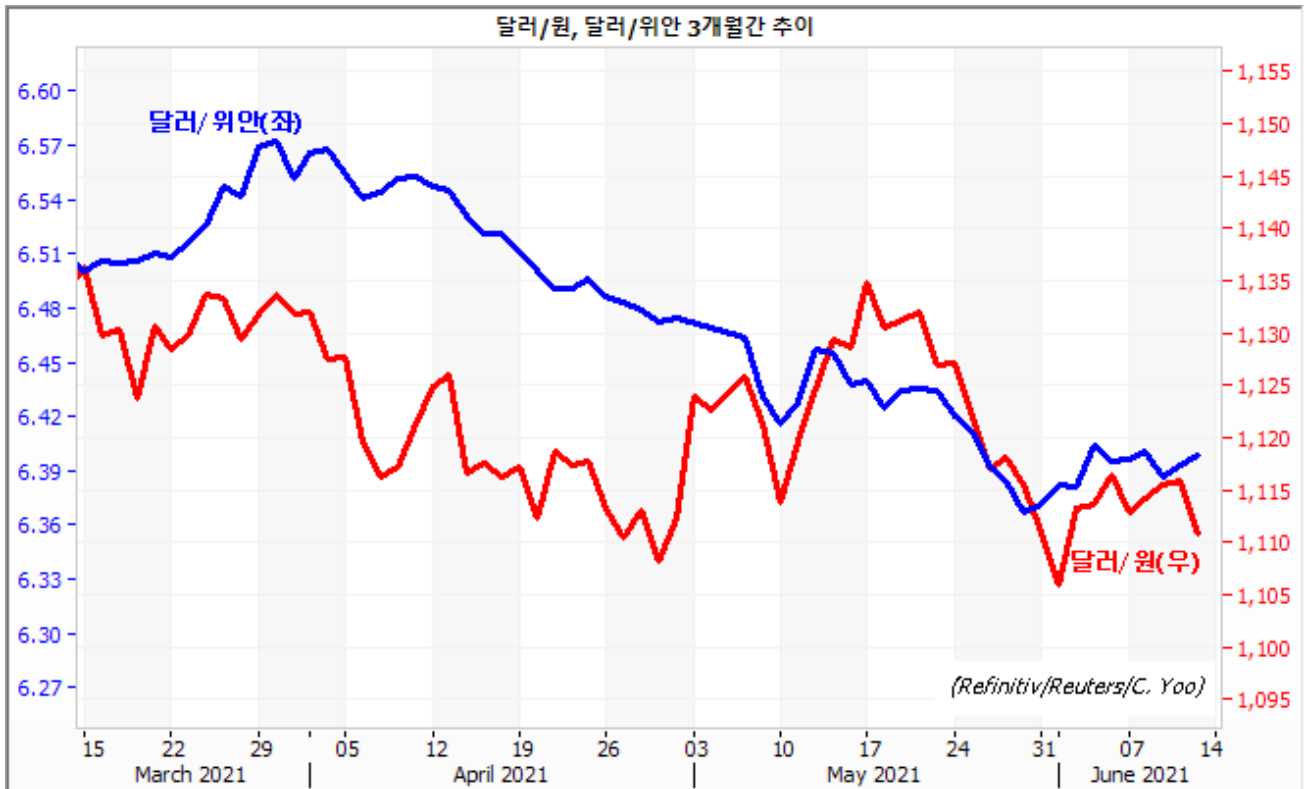
원화 전자거래 허용 범위와 도입 속도 등에 대한 당국과 시장의 세밀한 점검과 치열한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몇몇 기관 위주가 아닌 시장 내 다양한 의견 수렴도 중요하다.

새로운 외환시장 생태계가 마련될 가능성이 한층 가까워졌다. 이에 대한 전폭적인 시장 관심과 이를 둘러싼 진지한 담론이 뒤따르길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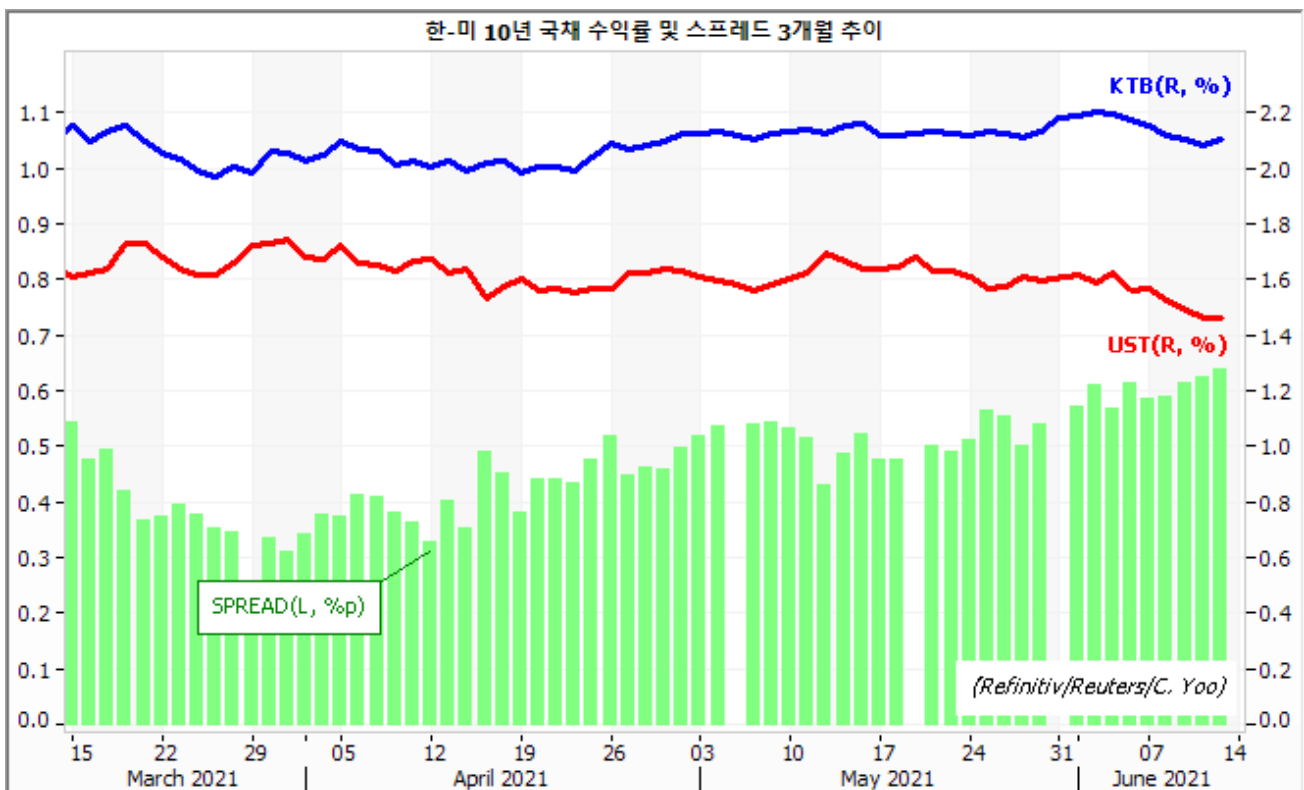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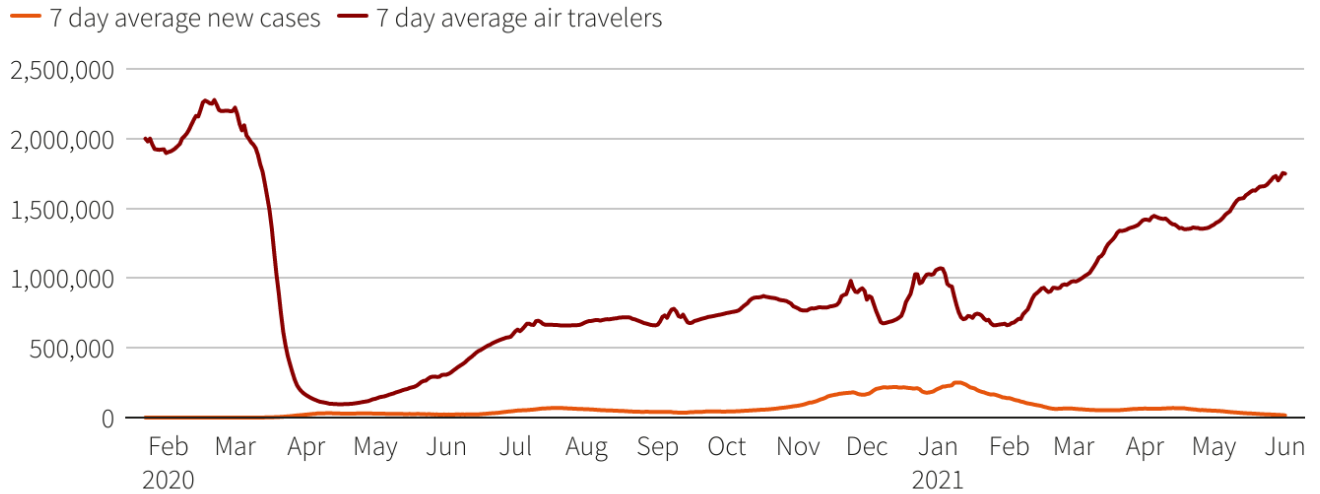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ir travel picks up as infections drop

The onset of the pandemic in the spring of 2020 caused air travel to crater, and to remain down around 50% through the worst of the health crisis. As infections have eased, travelers have returned.



Source: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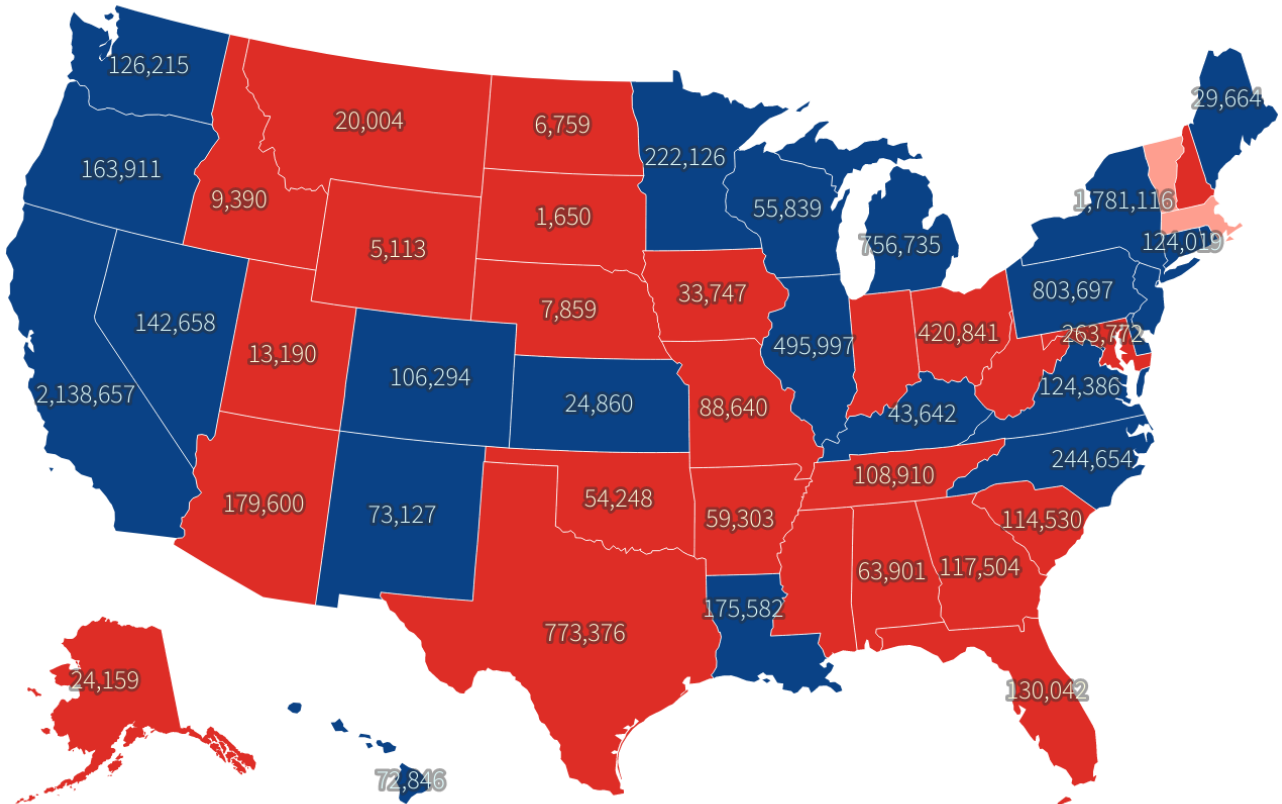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 red state roll off

25 states with Republican governors will end the \$300 per week 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benefit between June 12 and July 13. Among GOP-led states only Mass. and Vermont plan to keep the benefit until it expires in September.

States ending federal unemployment benefits early

● NO - Dem Governor ● NO - GOP ● YES - G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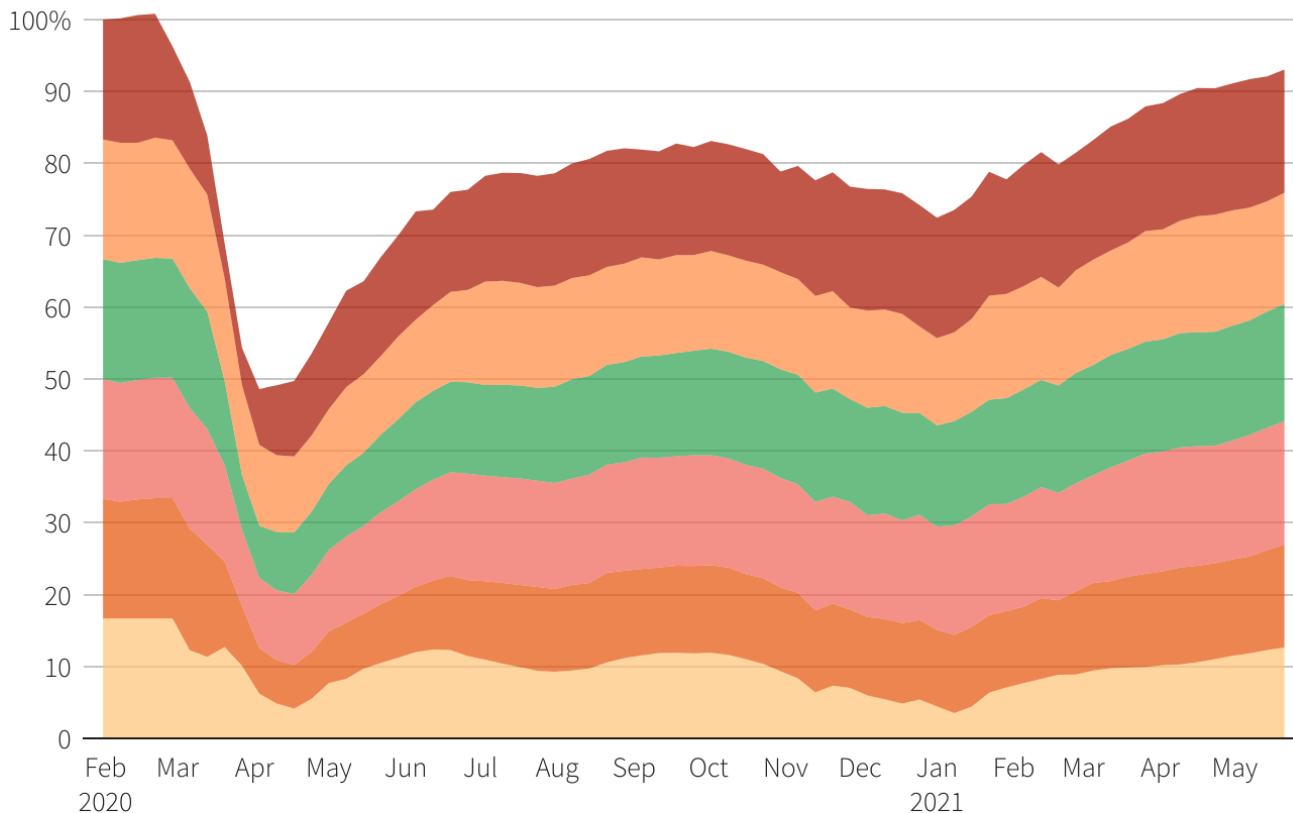
Note: Numbers of pandemic UI recipients as of May 8. Pandemic data unavailable for Florida. Number reflects state continuing claims. Source: Department of Labor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Oxford Economics Recovery Index

The consulting firm's combined economic, financial and health index has been climbing this year towards pre-pandemic levels as vaccines take hold and reopening proceeds.

Health Mobility Demand Employment Production Financial



Source: Oxford Economic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